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11. 6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AI해킹 AI로 막아야”…금융위, 망분리 전면 해제 추진

서울경제 https://zrr.kr/imfX54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혀
금융사 대상으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영역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역할 및 내부통제 체계도 들여다볼 계획

정부 '생산적금융'·은행 '자산 성장' 맞물려…기업대출 올해 최대폭 증가

머니투데이 https://zrr.kr/SL5ZfH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 가운데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은행들의 기업대출 영업 강화가 맞물리며 지난달 5대 은행의 기업 대출이 올해 최대 증가폭(9조원)을 기록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미미한 반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법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

우대금리 공시 세분화… 금감원, 대출금리 '꼼수산정' 손본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uWOfvq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체계 개편을 검토
우대금리를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 은행 본부와 영업점에서 자체조정하는 금리 등으로 나눠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

주식으로 돈 번 4050 잡아라… 은행권, 신흥 부자 모시기 경쟁 ‘활활’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FZAu0Q

과거 고액자산가들이 유망 종목이나 고수익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투자 수익을 지키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려는 수요가 증가
시중은행들도 투자부터 세무·증여,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며 신흥 자산가 확보에 나서

BDC 출범 7개월째 상품은 1개…"활성화 위해 증권사 참여 등 필요"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aOxSoo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상품 출시는 1개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
BDC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대출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한 번 터지면 다 물어줘야…제재 공포에 증권사 A3급 손 뗀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Bdqes5

대형 신용사건과 무관한 기업의 회사채·CP까지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최근에는 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까지 겹쳐 증권사들의 비우량물 취급 축소 추세
홈플러스·중앙그룹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위험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사실상 막혀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

롯데손보 해외부실 최대 2000억…“관리 가능한 수준”

서울경제 https://zrr.kr/2xn8or

신한금융그룹 품에 안긴 롯데손해보험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규모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대 200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신한 측은 롯데손보 인수가격이 적절한 범위 내에 있으며 예고한 대로 3000억 원 정도의 증자를 단행하면 정상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재보험 넘어 보험사 지분까지…글로벌 보험자본 '위험·투자' 동시 확보

보험매일 https://zrr.kr/6F9LDF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재보험이 단순한 위험분산 수단을 넘어 지분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을 결합하는 전략적 거래 수단으로 활용
보험부채의 위험을 이전하는 재보험과 경영통제권을 확보하는 지분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서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대체자산 운용사 사이의 경계도 달라지는 모습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뤘지만…해외 거래 파악·신고 문턱 낮추기 숙제

뉴스1 https://zrr.kr/VSQTWE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내놨지만, 해외 거래 파악과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신고체계 정비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
2020년 과세 법제화 이후 네 번째 유예인 만큼, 추가 준비기간을 실제 과세 기반을 갖추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

美 중간선거 끝나자… V 그린 비트코인

머니투데이 https://zrr.kr/qPqcTX

친가상자산 정책을 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8만달러 고지를 탈환
단기 불확실성 해소를 발판 삼아 해킹쇼크로 빚어진 낙폭을 엿새 만에 회복했는데, 시장의 중장기 관심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정책이 동력을 유지할지 여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